

오전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 예배부름 인 도 자
※ 예배기원 인 도 자
※ 경배찬송 44장(지난 이레 동안에)
※ 교독문49(시편108편)
※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494장(만세반석 열리니).....
예배기도 1부 선우명환집사 2부 박홍만장로
응답송 찬 양 대
이달의찬양 “가서 제자 삼으라”
협력기도 / 한 마음기도 / 중보기도 다 갈 이
* 사도행전 전도축제를 축하하여 주옵소서.	
*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품게 하소서.	
*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시편40:1-3..... 류종란권사
찬 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내 발을 반석위에 ”
기 도 최 세 열 목 사
◆응답하는 예배◆	
찬 송 204장(주의 말씀 듣고서)
봉 헌 (새신자돌봄사역팀)
봉헌기도 담임목사
성 찬 식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말 은 이
※ 찬 송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 축 도 담임목사
※ 축 복 송 찬 양 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 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		시백기도회(월-금)	
전교인전도대회		인 도 / 말은이		새벽 5:00	
		찬 양 / 다 함 계		인도 : 담임목사	
전도사역팀의 안내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함시다. * 함께 기도한 후에 출발하며 전도 후에 다시 교회로 모입니다.		기 도 / 말은이		예레미야서 강해	
		본 문 / 골로새서3:15-17		금요기도회	
		말 씬 / 최세열목사		금요일 오후9시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		소예배실	
		주기도문 / 다같이		합심, 중보, 개인기도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김금자 함경숙 김한순	다 음 주 기 도	1부	노재의집사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2부	강항구장로
	헌금위원	9월 최경선 이종열 김연학 김선영	다 음 주 성경봉독	1부	말 은 이
		10월 김금자 안해숙 김장숙 최근배		2부	이춘호권사
	식당봉사	금주 에스더B 다음주 마르다A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허 웅 집사	
헌신찬양	금주 새신자돌봄팀	다음주	1 구역		

내 발을 반석위에 / 시편 40:1-3

인생의 여정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아서 언제 요동할지도 모르고, 때때로 실족하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만세반석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만세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웅덩이와 깊은 수렁을 겁내지 않았습니.

1. 우리의 발은 가만히 두면 웅덩이와 수렁에 빠집니다(시40:2절).

세상 곳곳에는 우리가 빠질만한 웅덩이와 수렁, 울무가 수없이 놓여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란 늪과 죽음을 부르는 암초투성이를 말합니다. 세상이치를 따라 살아가면 절로 수렁에 빠집니다. 주님은 눅17:1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실족하게 하는 자 곧 악의 세력은 이 세상 끝까지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까지도 실족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발을 들여놓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에 발을 담그고 가만히 서 있으면 우리 발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한 밤중에 바다를 건너오시던 주님을 보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몇 걸음을 걸었지만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서 있거나 물결을 보는 순간 우리는 베드로처럼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2.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하게 하십니다(시40:2).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심은 축복입니다. 발이 견고함은 건강의 표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이며,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위에 든든히 세워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해야합니다. 복있는 자는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시1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분(시121:3)이십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이 되는 이것이 삶의 희망입니다. 삶의 용기입니다.

3.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반석위에 세워집니다.

땅의 기초가 든든해야 그 위에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위에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곧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마태7: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 인생이 반석위에 세워지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갈 것이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며, 주님의 뜻하신 곳에 있으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시143:8-10).

이렇게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고후4:8-9).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도 반석위에 인생을 세우는 반석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우리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시요, 든든한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을 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사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주십니다.

신앙주제 / 9. 상한 감정의 치유(2013.9.29)

제4과 언어상처(마음의 독)의 치유(야고보서 3:1-12)

말씀 살피기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 사상, 감정을 자유롭게 말로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말의 표현이 자기 자신과 상대를 유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1. 사람이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만일 누군가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2. 배의 키와 불씨는 작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혀 또한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가진 힘은 과연 어떨까요?(4-8)
3. 한 입으로 다른 두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떠리라 생각하십니까?(10절)

말 씬

사람은 일생 입으로 살아갑니다. 먹고, 호흡하고, 의사를 전하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입은 사람의 생명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내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 나와 상대를 살리는 생명력 있는 언어가 되려면 먼저 잘못된 언어습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언어의 상처는 치유되고 치유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째,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에 의한 실수만큼 범하기 쉬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말에 실수를 줄이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말(馬)을 따르게 하기 위해 말(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의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분별하여 말하고 사는 것입니다.

둘째, 생명을 살리는 언어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 자체는 유익한 것입니다. 추위를 녹이고 어둠을 밝힙니다. 그러나 불이 불어서는 안 될 산이나 집에 불이 붙으면 모든 것을 태우고 생태계가 몸살을 앓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잘못 사용된 말은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순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잠15:1)하고,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잠15:4) 합니다.

셋째,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고,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지 못합니다. 이 나무와 샘은 곧 근원을 의미합니다. 말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입을 통해 나온 말은 내가 말한 그대로 된다는 의미입니다. 언어의 인격을 바로 세우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마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적용

1. 상대방의 말로 인해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말이 가장 큰 상처가 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 말로 말미암은 실수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이 실수가 되었는지 이야기해보고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다짐해 봅시다.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2. 9월 한 달 동안 태신자를 품는 일에 온 교우들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3사람 이상의 태신자를 품으시고, 태신자 명단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찬양예배는 전교인 전도모임으로 모입니다. 점심식사 후 1시 40분에 본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4. 경기연합회 여신도회 회원대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초월교회에서 있습니다.(교회에서 3시30분에 출발합니다)
5. 예배 후에 구역장 인도자 모임이 전도실에서 있습니다.

향기로운 예물과 봉사

- 심 일 조 : 김근중 주종임 방옥남 김춘자 박정일 박지영 엄정현 천사라 김상례 김숙희 김태라 강은순 김대봉 김애자 이경훈 김귀례 안해숙 이미령 선우명환 장영분 김영란B
- 감사헌금 : 서영자 방옥남 강항구 류종란 노재의 김영란 김옥길 여순애 김지환 광현석 김태현 강지선 엄동순 이종춘 심문자 김동현 김애자 지대근 김숙희 홍경호 김정민 이경훈 지효린 무명2 김동현(일천번제)
- 건축헌금 : 방옥남 김애자 김옥길 여순애 선우명환 장영분 이종열 박현순 김귀례 안해숙
- 비전씨앗 : 배영인 박주한

예배시간안내

구분	요일	시간	장소	구분	요일	시간	장소
주일예배	주일	오전9시,11시	본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양예배	주일	오후 2시	본당	어린이예배	주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년부	주일	오후 2:30	전도실

여호와 나의 반석

미국 애리조나 주 코화 산맥에 있는 붉은 화강암으로 된 높이 2500피트의 계곡에는 자생 종려나무들이 장엄하게 솟아 있습니다.

수년 간 식물학자들은 어떻게 열대 식물인 이 나무들이 어둡고 가파르고 경사진 좁은 협곡 뒤편에서 그것도 하루에 2시간 동안만 햇빛을 볼 수 있는 곳에서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마침내 학자들은 계곡의 암벽이 충분한 햇빛을 반사해주고 또한 암벽이 하루 동안의 따뜻한 열을 충분히 저장해주고 있음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나무들이 자랄 수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종려나무처럼 하나님과 가깝게 친교하면서 살아가는 믿는 자들은 어둠의 압박과 열악한 환경을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는 사람들의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겪은 그리스도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발견하고 풍성한 간증의 잎들과 지극한 찬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은 번영이라는 햇빛이 거의 비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좁은 틈바구니 속에서도 아름다운 '의의 나무들'이 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기초를 둘 때, 우리는 코화 산맥의 종려나무들처럼 무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영원한 반석 예수

어떤 젊은이들이 결혼하여 보금자리를 꾸몄다. 두 사람은 소문난 잉꼬 부부였다. 그들은 30년 동안을 함께 살면서 자기들의 말대로라면 단 한 번도 서로를 미워할만 한 부부 싸움은 한 일이 없었다는 그런 부부였다.

아들 하나에 딸 하나를 낳아 곱게 잘 길렀다. 예수를 믿으라고 주위에서 전도할 때면 부부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예수가 끼어들면 재수 없다면서 거절할 정도였다. 그들은 늘 입버릇처럼 우린 한 날 한 시에 함께 죽을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런데 결혼한 지 31년째 되던 어느 늦가을 오후 심장 마비로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그토록 사랑하던 부인을 남겨둔 채 남편이 먼저 간 것이다. 그토록 믿고 의지했고 사랑했던 그녀의 반석이 무너진 것이다.

남편의 장례식을 마치고 그녀는 충격과 슬픔으로 자리에 몸져눕게 되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준비해 두었던 수면제를 먹고 남편 곁으로 간다는 유서를 남긴 채 두 눈을 감았다. 그러나 다행히 가족들에게 발견이 되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녀가 병실에 누워 있는 동안 전도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며 영원한 반석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 31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그녀의 반석이었던 남편은 그를 떠나갔지만 그 대신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이 그녀 곁으로 다가오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위로와 화평과 평안함과 기쁨을 주셨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3-39

2013.9.29.

구원하시는 오직 한 분

나폴레옹 황제에게 전적으로 헌신했던 어느 육군 원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원수는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가 야전 천막에 누워 죽어갈 때에 나폴레옹을 불렀고 그는 곧 왔습니다.

그 장교는 황제가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그저 고개를 가로 저은 후 가 버렸습니다.

그는 차갑고 무자비한 죽음의 손이 미지의 세계로 가는 장막 뒤로 저항할 수 없이 그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을 느끼며, 그는 그래도 소리 높여 울부짖었습니다. “구해 주소서, 나폴레옹 각하! 저를 구해 주소서!”

결국 죽음의 시간 앞에 그 군인은 나폴레옹마저도 그를 구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찾을 때,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를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나, 신부나, 위대한 기도의 용사라 할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고 말씀하십니다.

* 마취성을 지닌 클로로포름의 발견자이며 당대의 가장 뛰어난 과학자 중 한 사람인 제임스 심프슨경은 한 친구로부터 그가 여지껏 발견해 낸 것 중 가장 놀라운 것을 꼽아보라는 요청을 받자마자 주저함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까지의 발견 중 위대한 것이라면 나는 서슴없이 '구세주'를 발견한 것이라고 하겠네."

담임목사 : **최세일(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종만 강영구**

교육전도사: **강은순, 이경훈** 지휘: **김영란** 반주: **안진영**